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배 병 삼

조장(助長)의 끝

가을이 익어간다. 하루가 다르게 들판은 점점 황금빛으로 물들어간다. 논배미에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논이나 저 논이나 벼들의 키가 가지런하다. 이삭의 무게로 고개를 숙인 각도조차 한결같다. 문득 놀라움에, 내리비치는 햇살을 따라 하늘 위로 눈길을 돌린다. 눈이 부시다. 태양과 하늘의 공평함에 눈이 부신다.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 '하늘과 땅은 어떤 종류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더니 지금 들판에서 그 현장을 본다. 햇살이 고루고루 비치기에 벼의 키 크기가 저리 고르고, 하늘에서 뿌려주는 빗줄기도 이곳저곳이 두루 같기에 이삭의 무게조차 저렇게 평등한 것이리라.

저 천지자연의 공평무사함에 기대어, 제 욕심만 채우는 자를 두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며 제 결백을 하소연하기도 했을 터였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공평과 공정에 목마르다. 지난해 난데없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낯선 책이 초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이 그러하고, 올여름 느닷없이 안철수 현상이 온 나라를 들었다 놓았던 것도 그러하다. 안철수 현상을 두고, 좌파라느니 우파라느니 편을 가르는 분석들도 있었지만, 실은 유독 이 정권 들어 심각해진 권력의 사유화와 공공성의 훼손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문득, 조장(助長)의 고사가 떠오른다. 옛날 중국 땅에 오랜 가뭄이 들었다. 봄에 심은 묘들이 크지를 못하고 말라 죽을 판이었다. 하루는 정신이 맑지 못한 노인이 들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구, 힘들구나. 내가 묘를 키워주고 왔네"라는 것이다.

자식들이 놀라 들로 나가보니 묘를 키워준답시고 뿌리를 뽑아 올려, 온 들판의 싹들이 말라죽게 되었더라는 이야기다. 오늘날까지도 나쁜 짓을 도우는 것을 "조장한다"라고 쓰는 어투가 된 내력이다.

조장의 고사는 사사로움과 어리석음을 상징한다.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나서서 널리 바로 잡겠다는 설익은 영웅주의와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채 덤벼드는 무지의 낭패가 이 고사 속에 들어있다. 조장이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 더 나쁜 해악을 상대방에게 끼친다는 점에 있다.

지금 이 땅 도처에는 조장의 흔적들이 낭자하다. 흐르는 강을 막느라 억지공사를 한 탓에 끊임없이 관리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눈에 띄는 조장의 흔적이요, 경제를 발전시킨다면서 재벌들만 배를 불려 이젠 국민의 복지를 그들 자선에 기대야 하는 꼴로 만든 것이 또 다른 조장의 사례이다.

듣기로 대통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그 근로와 수고로움의 정체다. 그의 말투를 놓고 보면 짐작 가는 데가 있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는 말투가 그러하다. 이 말투를 두고 사람들은 그저 조롱조로 비웃고 마는데, 실은 대통령의 정체가 들어있는 말이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속에는 오만과 무지, 곧 조장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다. 맹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비평한 바다.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라는 오만한 말투와 낯빛이 권력자의 표정에 비치면 올바른 조언자들은 천리만리 떠나버리고 만다. 그 빈자리를 아첨하고 굽신거리며 아양 떠는 자들이 메우게 마련이다. 이따위 아첨하고 아양 떠는 자들과 함께한다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려보고자 한들 그게 가능키나 하겠는가?"(詘詘之聲音顏色, 距人於千里之外. 則讒諂面諛之人至矣. 與讒諂面諛之人居, 國欲治, 可得乎! '맹자')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라는 말 한마디 속에, 독선과 무지와 어설픈 영웅주의가 오롯하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껏 일한다고 자부하기에 안 되는 일과 잘못된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이 정권의 행태도 실은 이 '나'속에 들어있다.

이 정권 들어 장관 후보자들이 내내 불법과 탈법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유도 이 속에 들어있다. 나를 깨우쳐 공공성과 공정성을 함께 실현할 사람이 아니라, '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집행할 손이나 발과 같은 인간만 필요로 할 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장의 끝이다. 대통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수고롭다는데,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하다. 노인은 피곤한데 그쳤지만, 들판의 묘들은 말라죽었다. 〈영산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누락된 지역 국책예산, 정치권 살려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7일 확정된 가운데 광주시의 국비 지원액은 올해보다 5500억 원 가량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전남도 역시 금년보다 526억 원이 증가해 7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상당수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액이 삭감되면서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F1 대회의 경우 운영비 300억 원이 전액 누락되면서 내년도 대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대회 운영비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대회는 사실상 도비로 치러야 할 형편이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항공 수급을 위해 추진했던 여수공항 확장 사업비(200억)도 예산안에 빠지면서 교통대책 수립에 혼선을 빚게 됐다.

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1000억), 호남~제주 간 해저고속철 건설(100억) 등 상당수의 SOC사업 예산이 미반영돼 적신호가 켜졌다. 이밖에 전남도가 친환경 사육을 통한 구제역과 AI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요청했던 동물복지형 축산 예산 720억 원도 전액 누락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 현안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는 절대적이다.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청사진 자체도 불투명해진다.

이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누락된 현안예산의 확보는 정치권에 달려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 지역 소속 및 출신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 정치권이 똘똘 뭉쳐 차별화된 전략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기간에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타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가니' 파장 법적 제도 개선 계기 삼아라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최근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2005년 11월 세상에 알려진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 학생들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를 커다란 충격 속에 빠뜨렸다. 특히 지역민에게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수치감과 깊은 상처를 안겼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 사건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을 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죄질에 합당한 처벌 등이 이뤄졌다면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교직원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다. 하지만 당시 인권위 등에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2명만 징역형을 선고 받고,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더욱 말문이 막힌 건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버젓이 학교에 남아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영화 '도가니'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경찰청, 교과부, 광주시교육청은 물론 대법원장까지 나서 재수사와 감사를 하겠다,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뒷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인화학교 사건의 근본 원인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허술한 감독기능과 지원체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솜방망이 처벌도 사라져야 한다.

당국은 차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인화학교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박 상 원

한 개의 치아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틀니를 '완전 틀니' 혹은 '총의치'라고 한다. 선천적으로 치아가 완전히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완전틀니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된다. 그러나 같은 고령자라도 치아를 잃게 된 과정이나 신체의 건강 정도에 따라 완전의치를 사용하는 적응도에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조직세포의 생활력이 저하되고, 점막조직의 탄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완전틀니의 사용조건이 더욱 나빠지며, 저작근의 근력저하와 저작운동을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뇌 및 신경중추의 기능이 떨어져 턱 운동도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의치를 구강 내에 장착해도 그 의치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전신상태가 양호해 심리적으로 정상인 환자는 완전틀니의 제작도 용이하고, 장착 후의 경과도 좋은 편이다.

처음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한 환자들은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의치로 무언가를 깨물어 보든지, 여러 가지 발음을 해본다. 의치를 장착했을 경우, 진짜 자기 치아와는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씹기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음식물을 작게 만들어서라도 씹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딱딱한 깍두기 등을 능숙하게 깨물어 먹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배추김치 등을 잘게 썰어서 입에 넣고 씹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발음하기도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가끔 놀림을 받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틀니를 처음 장착하게 되면 반드시 큰 소리로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자주 발음연습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연습기간 중에는 대개 잇몸의 어떤 부위에 아픈 곳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지체없이 내원해 의치를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픈데에도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구강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의치의 적응 자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치아는 칫솔과 치약에 의하여 세정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약에는 연마제(돌 분말)가 포함되어 있어서, 단단한 표면 구조를 갖고 있는 자연치아의 경우는 마모의 위험성이 문제되지 않지만, 수지계 재료로 만들어지는 의치의 경우에는 연마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의치 표면의 마모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의치 세정은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기세제 등을 이용해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떨어뜨리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서 닦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열에 변형되므로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에 담가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잇몸의 휴식을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틀니를 빼놓아야 하며, 이때는 물속에 보관해야 한다.

완전틀니 장착자이건 부분틀니 장착자이건 간에 의치를 장착하는 사람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잇몸뼈는 나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의치 또한 변화(마모, 파손, 변형 등)하기 때문이다.

처음 틀니를 끼면 대부분 모습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며, 신문이나 잡지를 소리 내어 읽으면 부정확한 발음도 바로잡힌다.

〈전남대 치과병원 교수〉

기 고

아버지 리더십 발휘하라!

권 환 진

최근 장기적인 국내 경기불황으로 많은 가정들이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남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아상과 그 정체성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거의 상실되고 어머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교육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아버지는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발생한 영국의 폭동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구사회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훈육해야 한다"며 "이것은 단지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영국 폭동은 십대와 젊은이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거리를 점령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 불을 지르는 등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실제로 11세 청소년이 약탈혐의로, 18세인 첼시 이브스는 경찰차에 벽돌을 던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22세의 한 남성은 폭동 중 68세의 노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TV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된 폭동의 문제는 책임감, 적절한 양육과 훈계,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심각한 부재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자녀와 갖는 대화시간은 하루 평균 37초이며, 부부간의 대화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24분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지도 못한 자녀들, 한 번도 포옹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자녀를 포옹할 줄 모르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방황하는 자녀들, 윽박지름과 구타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기에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간직하고 멀어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가 되는 관계이다.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일은 가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고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자녀들도 자신의 원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 잃어버린 길을 찾을 방법이 없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평안과 소망을 주는 관계이다. 자녀들이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신분과 역할이 회복되어야 한다.

지금은 아버지들이 변화하고 배워야할 때이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가정에 돌아와 무능한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가꿔야한다. 사회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해 이 시대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망은 누구든지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친구 같은 아버지보다는 양육자로서 멘토로서 감정코치로서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버지라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되돌아보자.

요즘 말하는 슈퍼대디까지는 바라지 않더라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수동형이나 부재형으로 갔더라도 어느새 멘토로 감정코치로 돌아와 후세대에 행복과 지혜를 대물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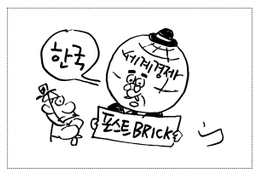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無 等 鼓

BRICK

15~16세기 유럽이 세계경제의 주역이었다. 그전까지는 중국과 이슬람권이 유럽을 압도했다. 산업혁명 등으로 이런 추세는 역전이 됐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이 부국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의 주도권은 20세기에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21세기 들어 미국경제마저 상대적 쇠퇴가 뚜렷하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IB)들은 2000년대 이후 대표적인 신흥 유망국으로 꼽혀온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외에도 시베츠, 마빈스, 믹트, N11 등 갖가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포스트 브릭스' 찾기에 분주하다.



차세대 신흥국으로 세계의 눈이 쏠리는 것은 현재 위기 극복의 열쇠를 신흥국이 쥐고 있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의 브릭스 국가 외에도 글로벌 성장의 축을 짊어질 새로운 국가를 탐색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새 성장엔진이 될 국가로 시베츠(CIVETS·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등 6개국을 꼽고 있다. 이외에도 브릭스에서 새 유망국가를 추가한 브림(BRICM·브릭스+멕시코), 브리시(BRICI·브릭스+인도네시아) 등이 흔히 언급된다. 한국을 편입시킨 그룹도 많다.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기존의 브릭스에 한국을 포함해서 BRICK란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포함된 (MIK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N11(한국,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을 신성장국가군으로 분류했다.

폐허와 빈곤의 땅이었던 한국이 반세기 만에 거둔 경제적 성과는 세계사에서 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포스트 브릭스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다시 뛰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조손가정 아이들 급증…정서 안정 대책 시급하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게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150만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해야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만 고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왜냐면 그만큼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 아들, 딸이 이혼하면서 남겨둔 손자를 돌보는 노인들은 또 무슨 죄가 있나.

노인들이 온 정성을 기울인다지만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부모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조손 가정은 지난 1995년 이후 10년 동안 65%나 증가했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이혼사유도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학대와 같은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성격차이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자녀문제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부부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래도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며 소위 아이들이 불쌍해서 이혼을 피하고 살았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컸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내 인생 내가 찾겠다'는 생각이 커져 이젠 아이들은 내버려두고 이혼부터 선택하는 것이다.

이혼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홀로 자라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정서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자라는 이 현상을 그냥 지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